

# 조선 총독부 초기 국어 교과서의 「동화」의 개념

(About the 'Assimilation' through Japanese Readings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구보타 유코\*

**Key Words** Japanese language, assimilatio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Korea Education Decree of 1911, Japanese Reading Book for Elementary School

## 1. 서론

본 연구는 조선 총독부 초기의 일본어교육에 대한 것이다. 이에 우선 근대 한국에 있어서 일본어교육의 역사를 개관하고자 한다. 근대 한국은 1891년에 외국어학교 전신인 일어학당에서 일어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895년에 근대 학교제도가 제정되고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관립외국어학교(일어과), 일어학교 등에서 일어가 교육되었다. 소학교에서의 일어교육방침은 「장래생활상 필요한 지식」, 중학교에서는 「이용후생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1904년 8월 제1차 일한협약을 체결하고, 1905년 11월 제2차 일한협약 후의 1906년 8월에 교육제도가 개편되고 모든 학교에서 일본어는 필수가 되었다. 소학교는 보통학교가 되고, 일어교육방침은 「실용에 이바지한다」로 변하고, 1909년에는 「처세에 이바지한다」라고 변경되었다. 고등학교, 고

---

\* 일본 규슈 산업대학교 국제문화학부 교수

등여학교, 실업학교, 사범학교에도 같은 교육방침이었다. 그리고 1910년 8월 병합 후 1911년 8월조선교육령에 의거해서 1945년까지 일어나는 「국어」로서 교육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은 피지배 민족의 일본으로의 「동화(同化)」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어가 그 주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sup> 종래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모두 명백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또한 이를 전제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 앞서, 일본어가 「동화」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논리와 일본어에 의한 「동화」교육의 성립 과정이 밝혀지지 않으면, 일본어 교육사 연구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어 중요한 점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래 불분명했던 일본어에 의한 「동화」의 개념을 해명하고자 한다. 「동화」의 의미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지만, 당시 저널리즘의 주장을 분석한 야마나카 하야토(山中速人)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2)</sup> 이에 따르면 「동화」란, 「천황의 적자(赤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예절, 습관을 익힌다」라는 의미이다. 그 의미를 보다 구조화 하기 위해 야마나카 하야토는 어떠한 「일본 사회의 문화나 규범, 행동의 패턴」을 익히도록 하였는지에 대해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1911.8. 23 공포)에 나타난 교육의 기본 방침은 「교육칙어(敎育勅語)」의 취지에 근거한 「충량화(忠良化)」였

1)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가 「식민지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침으로써 이를 통해 일본인화하고자 한 것은, 식민지 교육 정책의 근본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일본어는 일본인화를 위한 수단이었다.

矢内原忠雄(1963) 「軍事的と同化的・日仏植民地政策比較の一論」 『矢内原忠雄全集』第4卷、岩波書店、p.297.

2) 山中速人(1983) 「朝鮮『同化政策』と社会学的同化 下—ジャーナリズムをとおしてみた日韓併合時の民族政策論の構造—」 『関西学院大学社会学部紀要』第46卷、pp.297~308.

지만, 조선 총독부는 「동화」를 점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것은 「순량화(順良化)」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순량화(順良化)」란, 「제국 및 황실에 대한 감사, 보은의 정을 훈도하는 것에 그치고, 그 이외의 것은 오로지 개인으로서 생활상 필요한 성실, 근검, 규율, 청결 등의 제 덕목을 가르쳐 그들이 지닌 모든 악덕을 교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순량한 제국의 신민을 교양하는 것」<sup>3)</sup>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하에서의 총독부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여실히 반영된 보통학교용 국어 교과서의 편찬 의도와 교과서에 게재된 교재 및 그 취급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조선 총독부가 보통학교 학생들에게 「순량화(順良化)」의 결과로서, 어떠한 「일본 사회의 문화와 규범, 행동 패턴」을 익히도록 하였는지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sup>4)</sup>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이숙자(李淑子)의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병합 직후에는 일본의 역사적 인물, 일본의 신화·설화 인물, 황실 및 국가주의적 교재, 전쟁 및 군사적 교재, 신도(神道)와 관련된 교재 등이 병합 전보다 한층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5)</sup>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동화」의 개념에 관해 다루고 있지 않다.

3) 『教化意見書』(1910)、阿部洋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龍溪書舎、1991、(以下、『史料集成』)、第69卷、所収。

4) 본연구에서、朝鮮總督府編纂(1912~1915) 『普通学校国語読本』、(粒粒社発行、2000、復刻版)을 사용했다.

5) 李淑子(1980) 『教科書に描かれた朝鮮と日本 朝鮮における初等教科書の推移 1895~1979』ほるぷ出版、。

## 2. 「국어」에 의한 「동화」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

### 2.1 「동화」의 개념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에 이어, 1911년 10월에 공포된 「보통학교 규칙(普通學校規則)」 제9조에서는, 국어의 요지를 「국어는 보통의 언어, 문장을 가르쳐서, 정확히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 생활상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덕성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6)</sup> 이에 대해 교과서 편찬을 담당했던 총독부의 편집관인 다치가라 노리토시(立柄教俊)에 의하면, 국어의 요지는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언어의 일반적 역할 : 구보타주)과 「국민 정신을 함양하여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국어의 내용면에서 완수해야 할 역할 : 구보타주)의 두 가지이지만, 후자가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sup>7)</sup>

아울러 「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국민 정신을 함양하지 못하고,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지 않으면 충량한 국민이 될 수 없다」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정신을 함양하고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어에 의한 「동화」의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통학교 규칙(普通學校規則)」 제9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전반부의 「보통의 언어, 문장을 가르쳐, 정확히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라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국어 능력의 획득을 의미하

6) 「普通學校規則」朝鮮總督府『敎育學敎科書』附錄、p.17、『史料集成』第31卷、所收。

7) 立柄教俊(1913)「朝鮮人敎育と國語敎授」『敎育時論』、1000。

고, 「생활상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는 「유용한 지식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며, 후반 부분의 「덕성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민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즉, 국어에 의한 「동화」라는 것은 「국민 정신을 함양하는 것」과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2 「동화」의 구성요소

다음으로 보통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총독부의 「교과서 일반 방침(教科書一般方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三)内容は教科目の異なるに従ひ各其の特色を有すべきは勿論なるも、直接国民性養成に關係ある教科目に在りては、最も左の諸点を主となすべきこと。(내용은 교과목에 따라 각기 특색을 지니고 있음은 당연하지만, 직접적으로 국민성 양성에 관계된 교과목에 있어서는 더욱 위의 모든 점에 중점을 둘 것.)

イ、朝鮮は内地台湾等と同様我が国家の一部をなすものなることを明に知らしむ。(조선은 내지 대만 등과 다름없이 우리 국가의 일부임을 명확히 알린다.)

ロ、我が帝国は万世一系の天皇之を統治し給ふ所なるを知らしむ。(우리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께서 이것을 통치 합병하신 것임을 알린다.)

ハ、我が国が今日の如く国力の發展せること、並に朝鮮人が大日本帝国臣民として外世界一等国の人民と肩を比し、内幸福なる生活を営むを得るは、一に皇室の御恩沢によるものなるを深く印象せしめ、各其の本分を守りて皇室を尊び、国家に尽すべき道を知らしむ。(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국력이 신장된 것, 동시에 조선인이 대일본제국신민으로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내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황실의 은택 덕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고, 각자 그 본분을 지켜 황실을

존경하며 국가를 위하여 진력하는 도리를 알린다.)

ニ、実用勤勉を主とし、空理空論を避けしむ。(실용과 근면에 중점을 두고 공리공론을 피하도록 한다.)<sup>8)</sup>

국어 교과서는 위의 (三) 「직접 국민성 양성에 관계되는 교과목」에 해당하고, イ, ロ, ハ, ニ 가운데 특히, 「일본 사회의 문화와 규범, 행동의 패턴」에 관련된 사항을 추출하면 「ハ, 황실을 존경하고, 국가를 위해 진력한다」라는 것과 「ニ, 실용 근면」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해당한다.

나아가 각 교과서의 교과서 편찬요지(教科書編纂要旨)에는 국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 10가지 항목의 「보통학교 국어독본 편찬요지(普通學校國語讀本編纂要旨)」가 정해져 있다.

第二、国語讀本(全八冊)…(中略)…朝鮮總督府に於て新に国語讀本を編纂するに當り左の方針を取れり。(국어독본(전8권) (중략) 조선 총독부에서 새롭게 국어 독본을 편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취한다.)

(一)本府制定の表音的仮名遣法を用ひて從來母語を異にせる朝鮮人兒童に學び易からしむ。(본부가 제정한 표음적 가나표기법을 통해 종래 모어를 달리하는 조선인 학생들이 배우기 쉽도록 한다.)

(二)翻譯教授に依らず、専ら直觀的直接教授をなすに便なる様編成す。(번역교수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직관적 직접 교수법을 행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편성한다.)

(三)話方に重きを置き、出来得る限り速に兒童に教室內必要の會話を授け、總ての学科を國語にて教授するに差支なからしむ。(實際本書に依りて教授せし經驗によるに、何れの普通學校に於ても、兒童入學後約三箇月にして略日用の國語を話し國語を以て教授するを得べし。)

8) 朝鮮總督府學務局編輯課長小田省吾(1917) 『朝鮮總督府編纂教科書概要』, p.5, 『史料集成』, 第18卷、所収。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한 신속히 학생들에게 교실 내에서 필요한 회화를 가르치고, 모든 교과를 국어로 가르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실제 본서를 가지고 교수한 경험에 따르면 어떠한 보통학교에서도 학생이 입학한 후 약 3개월이 지나면 대략 일상 국어를 말하여 국어로서 교수할 수 있다.)

(四)朝鮮人に困難なる又は誤り易き發音を調査し、最も入り易きものより始めて漸次困難なるものに及ぼし、且つ正確なる發音練習に留意す。  
(조선인에게 어렵거나 틀리기 쉬운 발음을 조사하고, 가장 배우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것을 가르치고, 정확한 발음연습을 하도록 유의한다.)

(五)文体は卷七前半に至るまで口語体とし、同卷後半より平易なる文語体を出し、卷八には稍文語体を多くし、仮名遣も卷七後半より歴史仮名遣を使用し、以て世間慣用の仮名遣にて記せるものを読み得るに至らしめむことを期す。(문체는 7권 전반까지는 구어체로 하고, 7권 후반부터 평이한 문어체를 사용하며 8권에는 다소 많은 양의 문어체를 사용하고, 가나표기법도 7권 후반부터 역사적 가나표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세간에서 관용적 가나표기법으로 기록된 것을 읽어낼 수 있도록 기한다.)

(六)漢字は普通学校国語讀本全八冊を通じて約千五六百を提出し国定小学讀本に比し遙に多からしむ。之れ普通学校には別に朝鮮語及漢文の教科目ありて、漢字の學習左程困難ならず、亦其の使用の機会比較的多きによる。(한자는 보통학교 국어독본 전8권을 통해 약 1500~1600자를 제출하여, 국정소학독본에 비해 훨씬 많게 한다. 이것은 보통학교에는 별도로 조선어 및 한문 교과목이 있어 한자 학습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또한 이를 사용할 기회가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七)仮名は片仮名より始め、平仮名は第二学年の初(第三卷)より提出し、変体仮名の普通のもの之を韻文にて知らしむることとす。(가나는 가타가나부터 시작하여 히라가나는 2학년 초(제3권)부터 제출하고, 변체가나의 일반적인 것은 운문(韻文)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한다.)

(八)国語讀本の内容は修身書と相待ちて品性の陶冶、国民性の涵養に資すべきものなるに付、教材の選択は力めて此の点に留意し、又上に述

べし如く、本書に於て本邦歴史地理の大要を授くべき教材を加へたり。其の他朝鮮に在りて殊更緊要なる森林のこと道路のこと等に関する事項を含むこと亦少からず。(국어독본의 내용은 수신서와 더불어 품성의 도야, 국민성의 함양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재 선택은 되도록 이점에 유의하고, 또한 위에서 기술했던 것과 같이 본서에서 일본의 역사지리의 대요를 가르치는 교재를 덧붙였다. 그 밖에 조선에서 각별히 긴요한 산림이나 도로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였다.)

(九)本書に掲ぐべき歴史教材に於て、内地朝鮮間の親密なる關係を示すに足る古来の伝説史話は多く之を選び、国民的思情の養成を助くることに務め、近世に於ける我が国力發展の事實並に日韓併合の次第は何れも之を記述せり。又仁徳天皇の御仁政、菅原道実((ママ))の誠忠の如きも之を掲載す。(본서에 제시해야 할 역사 교재에 있어, 내지와 조선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만한 이전의 전설 사회는 다수 선정하여, 국민적 사상의 양성을 돕는데 이바지 하고, 근세에 우리의 국력발전의 사실 및 한일 병합의 경과에 대해서는 모두 이를 기술했다. 또한, 닌토쿠 천황의 어진 정치(仁政),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実)의 충성심과 같은 것도 이를 게재한다.)

(十)附録として卷七には本邦行政区画図を加へて我国の領土觀念を明確にし、卷八には神代御略系び天皇御歴代表を加へて皇統の連綿たるを知らしめ、共に兼て本邦地理歴史教材の参考とす。」(부록으로 권7에는 일본의 행정구획도를 첨부하여 우리나라의 영토 관념을 명확히 하고, 권8에서는 신대(神代)의 대략적인 계보 및 천황역대표를 첨부하여 황통의 연면(連綿)함을 알도록 하고, 또한 이것들을 일본 지리 역사 교재의 참고로 한다.)<sup>9)</sup>

그 중에서 내용에 관한 방침은 「(八)国語読本の内容は修身書と相待ちて品性の陶冶、国民性の涵養に資すべきものなるに付、教材の選択は力めて此の点に留意し…」(국어독본의 내용은 수신서와 더불어

9) 同上, p.13.



품성의 도야, 국민성의 함양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재의 선택은 되도록 이점에 유의하고) 의 항목이 해당한다.

즉,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서 유의해야 할 점은 마찬가지로 「국민성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정신을 함양하는 것」과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국어의 요지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편찬할 때에도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과서 일반 방침」의 교과서 내용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황실을 존경하고, 국가를 위해 진력한다」, 「실용 근면」이다. 이들은 각각 「황실을 존경한다」, 「국가를 위해 진력한다」, 「실용」, 「근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 정신을 함양하는 것」과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의 두 가지 점을 구성하는 요소는 「황실을 존경한다」, 「국가를 위해 진력한다」, 「실용」, 「근면」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소재나 그 취급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 기준으로서 「국민 정신을 함양한다」는 내용으로는 「황실을 존경한다」, 「국가를 위해 진력한다」, 「근면」의 교재가 해당되고,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위한 내용으로는 「실용」의 교재가 해당된다.

### 3. 「동화」의 구성요소에 관한 「국어」교재의 취급 방법

#### 3.1 「동화」의 구성요소에 관한 「국어」교재의 분류

여기에서는 『보통학교 국어독본(普通学校国語讀本)』에서 「국민 정신을 함양한다」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교재로서 어

떠난 교재가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보통학교 국어독본 편찬 취지서(普通学校国語讀本編纂趣意書)』에는 채택해야 할 교재가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수신(修身)에 관한 교재」 「옛날 이야기 · 전설 · 우화 등」 「국민적 특수 교재」 「역사에 관한 교재」 「지리에 관한 교재」 「이과(理科)에 관한 교재 및 실업(實業)에 관한 교재」 「미육(美育)에 관한 교재」 「가사(家事)에 관한 교재」 「처세상 필요한 보통 사항」이다.

이들 9가지의 항목이 「국민 정신을 함양한다」,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의 어느 측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하 『편찬취지서』의 「기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一、初メハ主トシテ、生徒ノ日常目撃スル事物ニ就キテ記述シ、漸次、国民トシテ知ラシムベキ各種ノ事項ニ及ビ、以テ普通ノ言語・文章ヲ授ケ、智徳ヲ啓發センコトヲ期セリ。(처음에는 주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물에 관해 기술하고, 점차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는 각종 사항을 통해 일반적인 언어·문장을 가르침으로써 지덕을 계발할 수 있도록 기했다.)

二、修身ニ関スル教材

今上天皇陛下及ビ明治天皇ノ御聖徳ヲ始メトシ、仮設人物・模範人物等ニ依リテ必要ノ教訓ヲ与へ、兼ネテ普通ノ礼儀・作法ヲ知ラシメ、修身科ノ教授ト相俟チテ、徳性ノ涵養ヲ図レリ。模範人物ハ主トシテ内地人ヲ選ビタレドモ、又、幾分、朝鮮人ヲモ加ヘタリ。(수신에 관한 교재: 긴조 천황폐하 및 메이지 천황의 성덕을 비롯하여 가설인물·모범인물 등에 의해 필요한 교훈 및 일반적인 예의·범절을 가르쳐, 수신과 교수와 아울러 덕성을 함양하도록 했다. 모범인물은 주로 내지인을 선정했지만 또한 다소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다.)

三、昔話・伝説・寓話等

人口ニ膾炙セルモノノ中、生徒ノ興味ヲ喚起シ、徳性ヲ涵養スルニ

足ルモノヲ採リ、古来、朝鮮ニ行ハル、説話ヲモ加ヘタリ。(옛날 이야기·전설·우화 등: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가운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덕성(德性)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정하고, 예로부터 조선에 전해지는 설화도 첨가하였다.)

#### 四、国民的特殊教材

我が国風民俗ノ中、国民性ノ養成ニ資スベキモノハ、務メテ之ヲ採レリ。(국민적 특수 교재: 일본적인 민속 가운데 국민성 양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택했다.)

#### 五、歴史ニ関スル教材

歴代天皇ノ御仁政ヲ始メ、本邦歴史ノ大要ヲ示スニ足ルベキ顯著ナル事項ヲ授ケ、特ニ古来、内地ト朝鮮トノ間ニ存セル關係ヲ知ラシムベキ類ノ事項ハ、務メテ之ヲ採レリ。(역사에 관한 교재: 역대 천황의 어진 정치와 비롯하여 일본 역사의 대요를 나타낼 만한 현저한 사항을 가르치고, 특히 예전부터 내지와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 알아야 하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택했다.)

#### 六、地理ニ関スル教材

本邦地理ノ大要ヲ示スニ足ルベキ重要ナル事項ヲ授ケ、幾分、外国地理ヲモ加ヘタリ。本邦地理ノ中、朝鮮地方ニ関スル事項ハ、主トシテ朝鮮語及漢文讀本ニ記スベキヲ以テ、国語讀本ニハ單ニ其ノ大体ヲ示スコトトセリ。(지리에 관한 교재: 일본 지리의 대요를 나타낼 만한 중요한 사항을 가르치고 일부 외국지리도 첨가했다. 일본 지리 가운데 조선지방에 관한 사항은 주로 조선어 및 한문독본에 기술하는 것으로 하고, 국어독본에는 단지 그 대략적인 것을 제시하기로 했다.)

#### 七、理科ニ関スル教材及ビ実業ニ関スル教材

自然物及ビ自然現象中、興味アルモノヲ授ケテ、理科ノ教授ト連絡セシメ、又、実業上ノ簡易ナル知識ヲ与ヘ、勤勉勞作ノ趣味ヲ起スベキ事項ヲ選ベリ。(이과(理科)에 관한 교재 및 실업에 관한 교재: 자연물 및 자연현상 가운데 흥미있는 것을 가르치고 이과의 교수와 관련시킨다. 또한, 실업상 간단한 지식을 가르쳐 성실히 노동하는데 흥미를 갖도록 하는 사항을 선정했다.)

八、美育ニ関スル教材

道德又ハ景物等ニ関スル歌詞・文章ヲ採リテ、徳性ヲ涵養シ、美的感情ヲ養フノ資トシ、又、唱歌ノ教授ト連絡セシメタリ。(미육(美育)에 관한 교재: 도덕 또는景物 등에 관한 가사·문장을 선정해서 덕성을 함양하고 미적 감정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한 창가(唱歌) 교수와 관련시키도록 하였다..)

九、家事ニ関スル教材

女兒ノ為メニ、家事의教材ヲ加ヘタリ。(가사(家事)에 관한 교재: 여학생을 위해 가사에 관한 교재를 덧붙였다.)

十、処世上必要ナル普通事項 前記九種ノ教材ノ外、処世上必要ナル普通ノ事項ニシテ、興味ヲ起シ、常識ヲ養フニ足ルベキモノヲ採レリ。」<sup>10)</sup>  
(처세상 필요한 보통 사항: 앞서 기술한 9가지의 교재 이외에 처세상 필요한 보통 사항으로서 흥미를 가지고 상식을 익히도록 하는 사항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수신(修身)에 관한 교재」, 「옛날 이야기·전설·우화 등」, 「국민적 특수 교재」, 「미육(美育)에 관한 교재」의 규정에서, 각각 「덕성 함양」 혹은 「국민성의 양성」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에서, 이들 4가지 항목은 「국민 정신을 함양한다」의 교재로 분류될 수 있다.

아울러, 지리 및 역사 교재에 관해서는 「교과서 일반 방침(教科書一般方針)」에 따라 국어독본에 지리 및 역사 교재가 다루어지고 있다. 「기술 사항」에서 「역사에 관한 교재」에 관해서는 「역대 천황의 어진 정치를 위시하여...예전부터 일본과 조선 사이의 관계에 있어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국민 정신을 함양한다」의 교재로 분류된다. 「지리에 관한 교재」에

10) 朝鮮總督府 『普通学校国語讀本編纂趣意書』, pp.3~6, 『史料集成』, 第18卷, 所収.

대해서는 지리적 설명 이외에, 일본의 상징이나 천황에 대해 언급한 기술이 있으므로 「국민 정신을 함양한다」의 교재에 분류하였다.

「이과(理科)에 관한 교재 및 실업에 관한 교재」와 「가사(家事)에 관한 교재」, 「처세상 필요한 보통 사항」은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로 분류했다. 다만, 「이과(理科)에 관한 교재 및 실업에 관한 교재」의 「기술 사항」에서, 「근면 노동의 취미를 일으켜야 할 사항을 선별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기술 방법에 따라서는 「근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에 분류된 교재에서도, 그 취급 방법에 따라서는 「국민 정신을 함양한다」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재의 취급 방법을 검토할 때 이 점에 충분히 유의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보통학교 국어독본(普通学校国語讀本)』의 각 권에는 「동화」의 개념 즉, 「국민 정신을 함양한다」 및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에 해당하는 어떠한 교재가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각 권에서 다루어진 교재를 위의 9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 3.2 각 교재의 취급 방법

《표1》 수신(修身)교재

권	과	제목	내용	분류
2	2	아침인사	학교에서 선생님께 아침 인사 드리는 방법	개인
	7	손님	손님을 맞이하는 법	개인
	8	순사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사회
	10	친절한 아이	맹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아이의 이야기	개인
	17	형과 아우	형은 아우에게 친절히 대하고 아우는 형의 말을 듣는 이야기	가정
	18	신년	새해 인사	가정
	19	일본국기(日の丸)	일본국기는 훌륭하고 용맹스럽다	국가
	20	천황폐하	천황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황실

	21	어머니	아이를 간병하는 어머니의 이야기	가정
	25	손수건	위생관념을 가르치는 내용	개인
3	3	매화와 벚꽃	매화와 벚꽃에 대한 찬미	국가
	20	메이지(明治)천황	메이지천황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황실
	21	꽃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마라	사회
	22	덴쇼세쓰(天長節)	현 천황의 은혜에 감사한다	황실
	23·24	관공서(1)·(2)	관공서는 백성을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명령을 준수	국가
4	1	국화	황실의 문장(紋章)인 국화 소개	황실
	3	응대	손님 응대하는 법	타인
	5	까마귀와 공작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내용	개인
	10	개미와 매미	근면을 가르치는 이야기	개인
	11	아이의 저금	심부름을 하고 저금하는 아이의 이야기	개인
	13	일본국가(君が代)	우리 임금님의 치세	황실
	25	속담	속담을 통해 교훈을 주는 내용	개인
5	1	신학년	학교를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아이의 이야기	개인
	10	도로공사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도로를 만드는 이야기	사회
	20	긴조천황폐하	긴조천황폐하에 대한 감사	황실
	21	효자 만키치(萬吉)	효행이 지극한 아이의 이야기	가정
	26	시오바라다스케 (塩原多助)	검약가가 성공한 이야기	개인
	28	재판소	재판소의 역할	국가·개인
6	3	메이지(明治)천황	메이지 천황의 은혜에 대한 감사	황실
	4	국화	황실의 문장(紋章)인 국화에 대한 찬사	황실
	17	배려	남을 생각해 주어야 함	개인
	23	도시와 시골	농업을 싫어하는 잘못된 마음가짐을 훈계하는 이야기	개인
	24	사람의 직업	실업(實業)을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 힘써야만 함	국가·개인
	26	이노우에덴 (井上でん)	구루메 직물(久留米絣)의 창시자를 칭송하는 이야기	국가
	29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덕분에 행복하다	국가
7	24	끊임없이 노력하라	쇼켄 황태후가 만든 와카 (근면하게 일하라는 내용)	개인
	29	지방 행정	지방 관리는 백성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	국가
8	1	황실	고마운 황실의 은혜를 잊지 말라	황실
	2	와카(和歌)	천황이 백성을 생각하는 노래와 가인이 일본인의 충의심을 읊은 노래	황실
	3	아메노 히보코 (天日槍)	스이닌(垂仁) 천황을 섬긴 신라왕자의 이야기	황실
	7	세계(1)	국민은 국가를 번성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	국가

13	이나하시(稻橋)마을의 미풍	군사 공채에 응한 근면한 마을의 이야기	국가
15	확실한 보증	인품은 옷차림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	개인
21	금강석	시간을 아끼며 착실히 배우고 일해야 한다	황실·개인
25	습득물 신고	습득물을 신고하는 법	개인
26	노동	어떠한 노동일지라도 신성하다	개인
28	공자와 맹자	공자와 맹자의 도를 전하는 내용	가정·개인
29	스가와라노미치자네(菅原道唇眞)	명신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를 칭송하는 내용	황실
30	대일본제국(1)	만세일제의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	황실
31	대일본제국(2)	국민은 황은에 보답하고 국운 융성을 도모해야 한다	황실

### 3.2.1 「수신 교재」

우선, 「수신 교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를 위해 미리 검토의 범위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보통학교 국어독본 편찬 취지서(普通学校国語讀本編纂趣意書)』의 「기술사항」에는 「수신에 관한 교재…수신과(修身科)의 교수와 함께 덕성 함양을 도모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보통학교 수신서 편찬 취지서(普通学校修身書編纂趣意書)』의 「제1편 총설」의 「제2장 교재」항에서 관련된 부분을 참조하기로 한다.

- 一、教材ハ普通学校規則第八条ニ拠リ、教育ニ関スル 勅語ノ旨趣ニ基ヅキ、道德上ノ思想及ビ情操ヲ養成シ、旧来ノ良風美俗ヲ失ハザランコトニ注意シ、実践躬行ヲ勸奨スルニ必要ナルモノヲ選ベリ。戊申詔書ノ旨趣中、朝鮮人教育ニ必要ナル諸点ハ、스ベテ之ヲ包含セシメタリ。
- 二、各学年ニ於テ、個人トシテノ心得、家庭ニ於ケル心得、他人ニ對スル心得、社会ニ對スル心得、皇室及ビ国家ニ對スル心得ヲ反復循環シテ提示セリ。国民道德ノ中枢タル忠孝ノ觀念ノ養成ニハ、特ニ重キヲ置ケリ。国家ノ法規、政府ノ命令ヲ誠實ニ遵守シ、官庁・官吏ニ對スル尊敬信賴ノ念ヲ厚クシ、苟モ之ニ對シテ誤解ナカラシメンコトヲ務

メタリ。朝鮮人ノ教育上、特ニ注意スベキ諸徳ノ涵養ニ務メタリ。」<sup>11)</sup>

이와 같이 수신의 내용은 「개인으로서의 마음가짐」, 「가정에서의 마음가짐」, 「타인에 대한 마음가짐」, 「사회에 대한 마음가짐」, 「황실 및 국가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국어독본(國語讀本)에서 다루고 있는 「수신 교재」가 이들 「마음가짐」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가 《표 1》의 「분류」항목이다. 아울러 「황실 및 국가에 대한 마음가짐」은 「황실에 대한 마음가짐」과 「국가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분류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복수(複數)의 「마음가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 3.2.1-① 「황실(皇室)에 대한 마음가짐」

《표 1》 권2 제20과 「천황폐하(テンノウヘイカ)」에서는 「천황폐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스러워하듯, 백성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천황폐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권3 제20과 「메이지(明治) 천황」에서는 「메이지 천황은…우리 나라를 지금과 같이 융성케 하셨습니다…우리들은 메이지 천황의 은혜를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8 제1과 「황실」에서는 「천황 대대로 만민을 자식과 같이 생각하시어, 어진 정치를 행하셨습니다…이처럼 감사한 황실이 있으니 우리 일본 신민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기술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은 과도 천황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표현된다.

이와 같이 「황실에 대한 마음가짐」에 해당하는 교재에는 「천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11) 朝鮮總督府(1916) 『普通学校修身書編纂趣意書』(『普通学校教科書編纂趣意書 第一編』), pp.1~2, 『史料集成』, 第18卷, 所収.



### 3.2.1-② 「국가에 대한 마음가짐」

권2 제19과 「일본국기(日ノマルノハタ)」에서는 「일본국기는… 훌륭해 보입니다… 참으로 용맹스럽습니다.」라고 하여 일본 국기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3 제3과 「매화와 벚꽃(ウメトサクラ)」은 매화와 벚꽃을 찬미하는 내용이다. 권3 제24과 「관공서(ヤクショ)(2)」에서는 「관공서에서는 모두 백성을 위해 일합니다. 누구라도 관공서의 명령은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관리에게도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여, 백성은 관리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5 제28과 「재판소(裁判所)」는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되면 고생스러우므로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6 제24과 「사람의 직업(人の職業)」에서는 「농업 · 공업 · 상업 등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고, 결코 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직업에 힘쓰고, 집을 풍족하게 하여,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실업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가에 대한 마음가짐」에 관한 교재에서는, 학생들에게 국가 번영을 위해서 실업(實業)에 종사하고, 근면하게 일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순종적으로 관리의 명령을 지킬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 3.2.1-③ 「개인으로서의 마음가짐」

권2 제25과 「손수건(手ヌグイ)」은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리면 병이 옮기 때문에 빌리지 말라는 위생관념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권4 제5과 「까마귀와 공작(からすとくじゃく)」은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 훈계하는 내용이고, 권4 제10과 「개미와 매미(アリトセミ)」는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권6 제23과 「도시와 시골(都会と田舎)」은 도시 생활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골에서 농업에 힘쓸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권8 제26과 「노동(労働)」은 어떠한 노동일지라도 신성한 것이며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개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관한 교재는 학생들에게 허세를 부리지 말고 검약하게 생활하며, 실업에 정진할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 3.2.1-④ 「가정에 관한 마음가짐」

권2 제17과 「형과 아우(兄と弟)」(형은 아우에게 친절하고, 아우는 형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 권2 제18과 「신년(シンネン)」(새해 인사에 관한 내용), 권2 제21과 「어머니(オカアサン)」(어머니의 간병 덕분에 아이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 권5 제22과 「효자 만키치(孝子萬吉)」(효행이 지극한 아이의 이야기)와 같이 가정에서는 효를 행하고 형제·부모의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내용이다.

### 3.2.1-⑤ 「타인에 대한 마음가짐」

「타인에 대한 마음가짐」에 해당하는 것은, 권2 제2과 「아침인사(アサノアイサツ)」(학교에서 선생님께 아침인사 드리는 법), 권2 제7과 「손님(オキヤク)」(손님을 맞이하는 법), 권2 제10과 「친절한 아이(シンセツナコドモ)」(시각장애인에게 친절히 대하는 아이의 이야기), 권4 제3과 「응대(トリツギ)」(손님을 응대하는 방법)로, 선생님이나 타인, 손님에 대한 예의, 장애인에게 친절히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 3.2.1-⑥ 「사회에 대한 마음가짐」

「사회에 대한 마음가짐」에 해당하는 것은, 권2 제8과 「순사(ジュンサ)」(나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권3 제21과 「꽃(お花)」(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말라는 내용), 권5 제10과 「도로공사(道ブシ)」(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로 사회 도덕이나 사회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 3.2.2 「옛날 이야기 · 전설 · 우화 등」

《표 2》에서 권2 제29 · 30 · 31과 「모모타로(桃太郎)(1) · (2) · (3)」과, 권3 제4 · 5 · 6과 「하나사카세지(花咲爺) (1) · (2) · (3)」은 일본의 옛날이야기와 관련된 단원이다. 권4 제22과 「알에서 태어난 왕」은 신라의 시조인 석탈해(昔說解)에 관한 전설이다. 권8 제3과 「아메노 히호코(天日槍)」의 출전은 니혼쇼키(日本書紀)로, 천황의 덕을 경모하여 일본으로 간 신라의 왕자가 황실을 섬겼다는 이야기이다.

《표 2》 옛날이야기 · 전설 · 우화 등

권	과	제목	내용
2	29·30·31	모모타로(1)·(2)·(3)	일본의 옛날이야기
3	4·5·6	하나사카세지(1)·(2)·(3)	일본의 옛날이야기
4	22	알에서 태어난 왕	신라의 시조인 석탈해의 전설
	24	하스히(巴提便)	하스히가 호랑이를 죽여 천자에게 헌상했다는 이야기
8	3	아메노 히보코(天日槍)	신라의 왕자가 황실을 섬겼다는 이야기

### 3.2.3 「국민적 특수 교재」

「국민적 특수 교재」에 속하는 교재는 권4의 제7과 「고타이신궁(皇大神宮)」, 제18과 「진무천황(神武天皇)」, 제28과 「1년(一年)」, 총 3과에

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모두 황실에 관한 축제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7과에서는 10월 17일에 행하는 궁중 행사인 신상제(神嘗祭: 천황이 햅쌀을 고타이 신궁에 헌신하는 제사), 제18과에서는 2월 11일의 기원절(紀元節: 일본의 건국기념일), 4월 3일의 진무천황제(神武天皇祭: 진무천황이 돌아가신 날), 제28과에서는 춘계 혼령제(皇靈祭)와 추계 혼령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은 황실의 제례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황실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수신교재(修身教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3》 국민적 특수 교재

권	과	제목	내용
4	7	황대신궁(皇大神宮)	신상제(神嘗祭)·신상제(新嘗祭)의 설명
	18	진무천황(神武天皇)	기원절(紀元節)·진무천황제(神武天皇祭)의 유래
	28	1년	춘계·추계 혼령제(皇靈祭)의 설명

### 3.2.4 「역사 교재(歴史教材)」

《표4》 역사 교재

권	과	제목	내용
4	7	고타이 신궁	존귀한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모시는 신사이야기
	14	스사노오노미코토	강한 스사노오노미코토 이야기
	18	진무천황	나쁜 무리로부터 백성을 구한 진무천황 이야기
5	4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	나쁜 무리를 정벌한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 이야기
	11	오진천황	오진천황 시대에 국위가 강성해진 이야기
	23	닌토쿠천황	인정 많은 닌토쿠천황 이야기
6	21·22	메이지 27·28년 전쟁 (1)·(2)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님을 인정하게 한 이야기
	27·28	메이지 37·38년 전쟁 (1)·(2)	러일전쟁에서 조선에 진출해 온 러시아를 물리친 이야기
8	16	동해의 해적	도고(東郷)사령관이 황국을 위하여 러시아의 함대를 쳐부순 이야기
	29	스가와라노미치자네	충신 스가와라노미치자네를 칭찬하는 이야기

「역사 교재(歴史教材)」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면 《표 4》와 같다. 그 중 권6 제21과·22과 「메이지 27·28년 전쟁 (1)·(2)」, 제27과·28과 「메이지 37·38년 전쟁 (1)·(2)」, 총 4과에서는 일본 군대가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제재로 삼고 있다.

권4 제7과 「고타이신궁(皇大神宮)」, 제14과 「스사노오노미코토(すさのおのみこと)」, 제18과 「진무천황(神武天皇)」, 권5 제4과 「야마토 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 제11과 「오진천황(應神天皇)」, 제23과 「닌토쿠천황(仁德天皇)」, 권8 제29과 「스가와라노미치자네(菅原道真)」의 총 7과는 모두 천황이 적과 가난으로부터 백성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수신교재(修身教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3.2.5 「지리 교재(地理教材)」

「지리 교재(地理教材)」에서는 《표 5》에서와 같이, 권4 제15과 「후지산(富士山)」은 「아름다운 산……일본 제일의 후지산」이라 하여 국가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후지산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권6 제9과 「혼슈(本州)와 시코쿠(四国)」에서는 중국(中国) 지방의 설명에, 스사노오노미코토(すさのおのみこと)가 조선으로 왕래했던 장소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권6 제16과 「교토 구경 이야기」에서는 교토 안내 중에 메이지(明治) 천황의 무덤·쇼켄(昭憲) 황태후의 무덤에 참배객이 많았다는 기술이 있다. 권8 제7과 「세계(1)」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신교재(修身教材)」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지리교재」라 할지라도 황실과 국가에 관심을 가지도록 의도된 교재가 포함되어 있다.

《표5》 지리 교재

권	과	제목	권	과	제목
3	16	산 위의 경치	6	1	닛코(日光)
	17	지도 보는 법		5	조선지리문답
	19	대일본제국		9	혼슈와 시코쿠
4	15	후지산		10	오사카에서 온 편지
	16	조선		16	교토 구경 이야기
5	3	조선의 지세		18	규슈와 대만
	13	비와(琵琶)호		19	홋카이도와 가라후토(樺太)
	18	도쿄		20	인접국
	27	경성	8	7·8·9	세계 (1)·(2)·(3)

또한, 《표6》에서 과의 내용이 제목에 대한 설명만을 취급할 때에는 내용기입을 생략했다.

### 3.2.6 「이과(理科) · 실업 교재」

「이과(理科) · 실업 교재」는 《표 6》에 나타낸 것과 같다. 단, 제재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이과(理科) · 실업교재」이면서도, 권6 제2과 「벼 베기(稻刈)」에서는 벼 베기의 중요함과 쌀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권6의 제7과 「고구마(甘藷)」에서는 이도 헤이자에몬(井戸平左衛門)과 아오키 곤요(青木昆陽)가 고구마를 국내에 소개한 것에 대한 감사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재의 취급 방식을 통해 「수신교재(修身教材)」로서의 역할도 갖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표 6》 이과 · 실업 교재

권	과	제목	내용
4	6	곡물	
5	5	종달새	
	6	차와 빵나무	
	7	생물과 무생물	
	9	직물	
	17	오이꽃	
	22	나팔꽃	
	24	물과 불	
	25	석탄과 기름	
6	2	벼 베기	벼 베기의 고충, 쌀을 함부로 하지 말 것
	6	기러기	
	7	고구마	이도 헤이자에몬·아오키 곤요의 은혜를 언급
	11·12	인간의 신체 (1)·(2)	
	13	식물	
7	5	일본의 산물(1)	농산물의 설명
	6	일본의 산물(2)	공업·양잠·도자기 등 산업 설명
	7	도자기와 칠기	도자기, 칠기 설명
	8	모양과 색	다양한 모양과 색 설명
	11	회사와 은행	회사와 은행의 업무와 구조 설명
	12	어음	어음의 구조 설명
	13	조합	조합의 구조 설명
	14	질병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26	산림	산림의 유용성
	27	목재	나무의 종류와 용도
	28	집	집을 짓는 재료와 집의 구조
8	11	동물의 색채	동물의 보호색
	14	지방금융조합	금융조합의 구조
	17	성냥	성냥의 제조 공정
	18	분업과 공동	생산에서의 분업과 공동의 업무

## 3.2.7 「미육교재(美育教材)」

《표 7》 미육교재

권	과	제목	내용
2	4	달	보름달이 아름답다는 내용
	27	연	「연아 올라라」일본 동요
5	2	봄이 왔네	「봄이 왔네」일본 동요
6	4	국화	국화를 현명하고 덕이 높은 군자에 빗대어 칭찬하는 노래
	17	배려	타인을 배려하는 노래
7	1	일본의 경치(1)	이쓰쿠시마, 아마노하시다테, 마쓰시마의 아름다운 경치 설명
	2	일본의 경치(2)	요시노야마, 아라시야마의 아름다운 경치 설명
	3	일본의 경치(3)	금강산, 만물상, 구룡폭포의 아름다운 경치 설명
	4	일본의 국토	일본의 국토는 소나무와 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국토
	24	끊임없이 노력하라	국가를 위해 매일 힘쓰라는 노래
8	2	와카	메이지천황, 고다이코(後醍醐) 천황이 백성을 생각하는 노래, 일본인에게 충의심이 있다는 노래
	21	금강석	쇼켄 황태후의 매일 정진하라는 노래

「미육교재(美育教材)」에는 《표 7》과 같이, 일본의 어린이가 자주 부르는 노래, 천황이 백성을 생각하는 노래, 국화를 천황에 비유한 노래, 일본 경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노래가 실려 있다.

권7 제24과의 「끊임없이 노력하라(つとめてやまず)」라는 노래에서는 근면하게 일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권8 제21과 「금강석(金剛石)」은 쇼켄황태후(昭憲皇太后)가 부른 노래로, 금강석도 닦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듯이, 사람도 시간을 아끼며 착실히 배우고 일하지 않으면 덕도 학문도 지닐 수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미육교재(美育教材)」에서는 와카(和歌)를 배우게 함으로써 근면하게 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의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 3.2.8 「가사(家事) 교재」

「가사(家事) 교재」는 《표 8》과 같이, 권4 제4과 「재봉(さいほう)」과 권5 제14과 「재봉과 세탁(さいほうとせんたく)」이 해당된다. 권2부터 권8까지 불과 2개의 단원뿐이며, 그 내용은 재봉과 세탁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표 7》 가사(家事) 교재

권	과	제 목	내 용
4	4	재봉	옷의 관리
5	14	재봉과 세탁	재봉과 세탁은 여자가 하는 일

### 3.2.9 「처세상 필요 사항」

「처세상 필요 사항」이라고 분류된 단원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 제재는 방위와 시각, 달력에 관한 설명과 편지 쓰는 법, 혹은 자주 볼 수 있는 동물(돼지·닭·잉어·새·반딧불·박쥐·곰 등)과 식물(짚·대나무 등), 풍물시(단풍·눈·눈사람·수영·설맞이 대청소), 탈것(기차·증기선), 명소(나라의 대불·온쓰(恩津)의 미륵불), 자주 일어나는 일(질병·간병), 문자에 관한 것(히라가나·가타가나·음과 훈), 문장에 관한 것(일기·한문 훈독 등)이다. 이들은 실제 생활에 필요하며, 일본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필수 항목을 선정해 놓은 것이다.

## 4. 결론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기의 일본어를 통한 「동화」의 개념은 「국

민정신의 함양」 「유용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동화」의 구성 요소는 「천황을 존경한다」 「국가를 위해 진력한다」 「실용」 「근면」의 네 가지 요소였다.

그 중 「천황을 존경한다」 「국가를 위해 진력한다」 「근면」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다룬 교재는 「수신교재(修身敎材)」와 「역사교재(歷史敎材)」, 「미육교재(美育敎材)」에 중점적으로 할당되어 있다. 「수신교재(修身敎材)」중에서 「황실에 대한 마음가짐」에 해당되는 교재는 「천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의도되어 있었다. 「국가에 대한 마음가짐」에 관한 교재는, 국가 번영을 위하여 실업에서 근면하게 일하며,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관리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함이 의도되어 있었다. 「개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관한 교재는 겉치레를 하지 않고 검약하게 생활하며, 실업에 정진하도록 하는 것이 의도되어 있었다. 「역사교재」는 황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육교재(美育敎材)」는 천황과 황태후의 와카를 통하여 근면하게 일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또한, 「동화」의 또 하나의 구성 요소인 「실용」에 해당되는 교재는 「이과(理科) · 실업 교재」에 중점적으로 할당되어 있었다. 단, 「이과(理科) · 실업교재」라 하더라도 「국민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아울러 「옛날이야기 · 전설 · 우화 등」에 관한 교재에는 천황의 덕을 찬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위시하여, 그 밖의 많은 교재가 「국민정신의 함양」을 보완 혹은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결국, 「동화」의 의미는 학생이 「천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짐과 더불어 「실용」적인 지식 기능을 익히고, 실업에서 근면하게 일하고, 관리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진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일본어 교육은 그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韓基彦·李啓鶴·李吉相共編(1993) 『韓國教育史料集成 開化期篇Ⅳ』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韓國文獻研究所編(1977) 『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第1卷·第6卷、亜細亜文化社。
- 韓國文獻研究所編(1984) 『旧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二 政治篇②』서울亜細亜文化社。
- 西川長夫·松宮秀治編(1995) 『幕末・明治期の国民国家形成と文化変容』新曜社。
- 李淑子(1985) 『教科書に描かれた朝鮮と日本 朝鮮における初等教科書の推移 1895—1979』ほるぷ出版、
- 矢内原忠雄(1963) 『矢内原忠雄全集』第4卷、岩波書店。
- 石剛(1993) 『植民地支配と日本語—台湾、満州国、大陸占領地における言語政策—』三元社。
- 陳培豊(2001) 『「同化」の同床異夢』三元社。
- 金英宇·皮貞晩(1995) 『最新 韓國教育史研究』教育科学社。
- 黄湜江(1991) 『韓國の神話伝説』(宋貴英訳)東方書店。
- 孫仁銖(1997) 『韓國近代教育史』(延世大学出版部、1971年初版)文音社。
- 李元浩(1983) 『開化期教育政策史』文音社。
- 李萬珪(1949) 『朝鮮教育史』乙酉文化社。
- 稲葉繼雄(1997) 『旧韓末「日本語学校」の研究』九州大学出版会。
- 唐沢富太郎(1989) 『唐沢富太郎著作集』ぎょうせい。
- 海後宗臣(1980·1981) 『海後宗臣著作集』第5卷·第6卷、東京書籍。
- 渡辺学·阿部洋編(1987~1991) 『日本植民教育政策地史料集成(韓國篇)』龍溪書舎、(以下『史料集成』。)
- 朝鮮總督府(1917) 『朝鮮總督府編纂教科書概要』、『史料集成』、第18卷、所収。
- 朝鮮總督府(1922) 『現行教科書編纂の方針』、『史料集成』、第18卷、所収。
- 朝鮮總督府(1916) 『普通学校修身書編纂趣意書』、『史料集成』、第18卷、所収。
- 朝鮮總督府(1912~1915) 『普通学校国語讀本』(2000、復刻版)粒粒社。
- 朝鮮總督府 『教育学教科書』、『史料集成』、第31卷、所収。
- 朝鮮總督府 『普通学校国語讀本編纂趣意書』、『史料集成』、第18卷、所収。
- 『教化意見書』(1910)、『史料集成』、第69卷、所収。

## &lt;Abstract&g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assimilation' through Japanese language under the Korea Education Decree of 1911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For that purpose, I first study the intention with which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dited and published 『Japanese Reading Book for Elementary School』, and then examine the way they treated reading materials that were introduced in such reading books. It turns out that the meaning of the Japanese 'assimilation' is suggestive of upsurging of the national spirit (or patriotism), as well as learning of useful knowledge of skills. In this context, the essential parts of 'assimilation' are understood to include such aspects as 'having respect for the Imperial House (in Japan),' 'making exertions for the country,' and 'practicality and diligence'. And, the image of an ideal human being, which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trained to pursue by the education of Japanese language that treated such aspects of 'assimilation' as critical subjects, is identified with a mind of gratefulness to the Emperor. It is accordingly understood to become a man, i.e., a pillar of the Japanese society, who learns practical knowledge of skills, works diligently in business (or industry), and eventually makes exertions for his/her country while obeying the government officials' order.

이름 : 구보타 유코(久保田優子)

소속 : 일본 규슈산업대학교 국제문화학부 교수

주소 : 日本 福岡市東區松香埜 2-3-1 九州産業大學

전화 : 日本 092-673-5826

메일 : kokusaiyuko@hotmail.com

논문투고일 : 2007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7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 : 2007년 3월 10일